

한국불교 법맥찾기 '디딤돌'

구산선문 시리즈 첫권 '수미산문과 조동종' 출간

불교영상화보사(대표 최석환)의 야심작인 '구산선문 시리즈'가 첫권을 보였다. 불교전기문화연구소가 엮고 조동종 종정 문헌연구팀이 감수한 <수미산문과 조동종>이 3년만에 출간됐다.

구산선문 시리즈 8권중 첫번째로 간행된 이 책은 조동종(曹洞宗)의 법맥을 분석하고 9산선문의 하나인 수미산문의 전개과정과 일연 김시습 등의 유필을 통해 우리나라 조동종의 흐름을 역사적으로 조명하고 있다. 그동안 잊혀져 왔던 조동종의 핵심어록과 금석문 선사 등이 문헌자료로 말라되어 이뿐만 아니라 조동종의 실체를 규명하는데 획기적인 연구서가 될 전망이다.

수미산문에 대한 최초의 본격 연구서인 이 책은 모두 7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에서는 중국 조동종의 시조인 석두회천의 사상과 일대기를 다루었으며, 제2장에서는 중국의 동산양개와 운거도승, 신라의 이엄진철을 중심으로 조동종의 성립과 전개를 사상적으로 규명했다.

제3장은 입당선승의 조동종 전래를, 제4장은 우리나라 구산선문 및 수미산문의 성립과 전개를 서술했다. 제5장은 수미산문 관련 논문을 정리했으며, 제6장은 '동산양개선사 행록' 등 5편의 어록과 '조동종구려백가일원비' 등 7편의 선사, '중원조동요위서' 등 3편의 조동종 핵심어록, '진철대사보월승공탑비문' 등 5편의

照) 선택이었다. 수미산문은 고려시대에 들어서면서 전성기를 맞았다. 개조 이엄진철로부터 보리사의 대경, 정토사의 법경, 무위사의 선각왕사 등은 4무의대사로 불린 태조 왕건의 왕사들로서 고려 건국의 밑거름이 되었다. 이들은 모두 운거도승 문하에서 수습하였으며 그 선택은 조선시대까지 이어졌



테이프로도 출시할 예정이다. 그간 구산선문에 대한 단편적인 논문은 나왔으나 이처럼 본격적인 연구서가 시리즈로 기획되는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우리나라 불교의 원류인 나말여초 9산문(山門)을 전체적으로 조명하는 이번 간행작업은 우리불교의 바른 법맥을 찾는 데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380쪽, 1만5천원

김재경 기자

이록·금석문·선시등 문헌자료 총망라 조동종 성립·전개등 사상적 흐름 조명

금석문을 실었다. 우리나라의 조동종은 신라 말엽에 이엄진철(利嚴眞徹: 866~932) 스님이 중국 당나라에 들어가 운거도승 스님의 문하에서 수선(修禪)하여 실인을 받고 귀국, 고려 태조 5년(932)에 황해도 해주군 금산면 내정리 수미산에 광조사(廣照寺)를 창건하고 목조선종을 드날리면서 비롯됐다. 신라 구산선문 중 맨 마지막으로 들어 온 선문이며서도 유일한 목조(獸

다. 일연스님은 조동종의 요체인 <중원조동요위>를 남겨 조동종의 부흥을 도모했으며 김시습은 <중원조동요위요해>를 지어 이에 화답하기도 했다. 한편 불교영상화보사는 <동리산문과 영불선> <공산산문의 농촌선> <가자산문과 조계선종> <성주산문과 남종선> <봉림산문의 선종> <사자산문과 남종선법> <화양산문의 선종> 등 나머지 7권(黃相山門은 자료 부족으로 제외)을 잇달아 발간하고 비디

출판소식

문체부 추천도서 8종

문화체육부(장관 김영수)는 '제29회 추천도서'로 민족사(대표 윤창화)가 펴낸 <한국 근대불교사 연구> 등 9개분야 1백11종 2백6권을 선정했다.

이중 불교관련서는 △종교철학 <한국 근대불교사 연구>(김광식) <새로운 불교 해석>(김진) △문학 <한용운>(최동호) △예술 <우리 옛그림의 아름다움>(이동주) <한국미술사 자료집 4. 5>(진홍섭) △과학기술 <한국의 건축>(윤장섭) △민화 <파이팅 손오공>(이정문) △종류 <한국사 논지 분류 총목>(김동수) 등 8종이다.

'올해의 좋은책 10' 선정

전국출판노조협의회는 '96 올해의 좋은 책 10'을 선정 발표했다. 선정도서는 <나무야 나무야>(신영복) <다시 현실과 전통의 지평에서>(유홍준) <죽은 사나이>(박재홍) <조선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1,2>(한국역사연구회) <한글로 읽는 조선왕조실록>(박영규) <오래된 미래>(헬렌 노르베리 호지) <연어>(안도현) <자유주의 이후>(이매뉴얼 윌러스틴) <꿈지 닷 발 주동이 닷 발>(서정오) <새로 쓰는 결혼이야기 1,2>(또하나의 문화동인들) 등이다.



일지스님의 <禪 이야기>는 '사상적으로서의 사회적 한계'를 갖고 있다는 우리시대의 오탁을 극

화제의 책

복하고, 대승불교의 헌신적이면서도 강인한 인간주의를 바탕으로 전개된 禪의 참모습을 알리기 위해 쓰여진 본격 선입문서다.

禪이야기 일지 지음

선사들의 깨달음통해 본 禪의 정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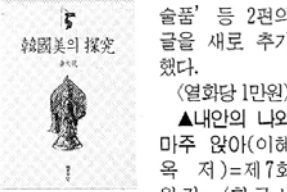
제1부 '이름답고 힘찬 선의 지혜'에서는 달마에서 성철에 이르는 한·중·일 선사들의 깨달음이 담긴 선이야기를 130여 가지로 정

선해 선의 근본정신이 무엇인가를 보여준다. 제2부 '선의 기원과 본질'에서는 선과 선종 및 선종사, 선종의 큰 흐름을 이루는 5대7종은 물론 공안, 간화선과 묵조선, 선종의 수도규칙으로서의 청규, 할과 방, 선사들의 오도승, 선종의 총림제도 등과 같은 다양한 주제를 알기쉽게 소개한다. 제3부에서

솔름' 등 2편의 글을 새로 추가했다. <영화당 1만원> ▲내인의 나와 마주 앉아(이해욱 저)=제7회 월간 <한국시



일용(日用)이 곧 부처의 작용이라 하였다. <홍원일 7천원> ▲한국의 탐구(김원룡 저)=한국 미술사·고고학의 기틀을 다진故 삼불(三佛) 김원룡(1922~1993) 서울대학교의 역작. 고인의 서거 3주기를 추모, 초판이 출간된 지 18년만에 개정증보판이 나왔다. 도판을 대폭 교체하고 '백제 불상조각 연구' <소동파집(蘇東坡集)>에 보이는 '고려미



(대표 김해성) 문학상 시조부문 대상 수상작. 자신의 내면을 추구하는 구도적 시와 일상과 자연에 대한 친화적 시 108편을 모았다. 삶의 현장에서 생생하게 불교정신을 구현하고 있는 그녀의 시에는 자연과 사물을 인간의 종속물보다 보지 않고 생명 그 자체로 여기는 불교적 생명관이 고스란히 응축되어 있다. <솔바람 5천5백원>

'여시아문' 선정 올해의 베스트불서 10

올해의 최고 인기불서는 일타스님의 <생활속의 기도법>으로 나타났다. 책방 여시아문(02-737-0696)이 선정된 '올해의 베스트불서 10'에 따르면 일타스님의 <생활속의 기도법>과 <기도>가 1, 2위를 각각 차지했다. 1, 2위는 물론 3위 <삶은 풀꽃이다>, 5위 <그 마음을 바쳐라>, 6위 <중생이라는 이름의 부처에게> 등 5권의 법어집이 베스트불서에 선정된 것도 특히 눈에 띄는 부분. 이외에 수상 집이 2권(4, 8위), 소설 1권(7위), 입문서 1권(9위), 경전해설서 1권(10위)이 선정됐다. <편집자 주>

생활속의 기도법 (1위)

기도는 실재이지 이론이 아니다. 하지만 법에 맞지 않는 기도는 올바른 결실을 이뤄낼 수 없다. 따라서 기도 방법을 제대로 아는 것이 성취만큼이나 중요한 일이다. 제1장 '생활속의 기도법', 제2장 '특별 기도 성취법', 제4장 '영가 천도 기도법'을 통해 기도성취의 원리와 방법, 마음가짐에 대해 설명했다. <기도>의 속권. <일타스님 저, 효림, 3천5백원>

기도 (2위)

조계종 전계대화상을 역임한 일타스님의 기도성취 경험담 모음. 저자 자신과 도반, 선배, 제자, 신도들이 체험한 기도 영험담과 전래되는 수많은 영험담 중에서 감명깊은 20여편을 함께 수록한 기도에 대한 생생한 기록이다. 바른 방법으로 기도하면 틀림없이 부처님의 가피를 입을 수 있음을 입증하였으며 각 이야기마다 올바른 기도법과 간략한 해설을 덧붙였다. <일타스님 저, 효림, 5천원>

삶은 풀꽃이다 (3위)

경전에 갇힌 불교가 아닌 살아 숨쉬는 생활불교를 주창하며 중생교화에 진력하고 있는 대행스님(한마음선원장)의 법어집. 진실로부터 절로 터져어나는 스님의 법어는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우리나라 불교의 원류인 나말여초 9산문(山門)을 전체적으로 조명하는 이번 간행작업은 우리불교의 바른 법맥을 찾는 데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380쪽, 1만5천원

저거는 맨날 고기묵고 (4위)

기음을 적시는 맑고 아름다운 삶의 이야기들. 울고 웃으며 살아가는 삶속에서 마침내 부처님 세상을 엿보게 된다는 이야기들이 1~4 전권을 통해 펼쳐져 있다. 어려운 낱말을 빌리지 않은 간결한 글들이 마음발을 가꾸는 여유를 만끽하게 한다. 1~3권은 생활속의 불교를 다룬 수필집, 4권은 고려시대 회경스님과 보덕각사에 대한 설화를 바탕으로 한 소설이다. <우학스님 저, 좋은인연, 각각 6천원>

그 마음을 바쳐라 (5위)

금강경속회 지도법사인 저자가 <뛰는 마음 밝은 마음>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라>에 이어 펴낸 수행지침서. 전문 수행인본 아니라 현대를 살아가는 모든 이들이 쉽게 공감하며 생활중에 실천해 볼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그 마음을 바쳐라'는 책 제목은 일상의 모든 일에 한마음을 바치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을 단적으로 표현한 말. <김재웅 저, 용화, 7천5백원>

중생이라는 이름의 부처에게 (6위)

한국불교의 살아있는 전설인 33분 큰스님들의 사자후를 한 곳에 담았다. 조계종 종정 및 전 종정, 원로회의 의장, 5대 총림의 방장스님과 오랜 세월 수행에만 전념해 온 원로스님들의 육성을 한 자리에서 생생하게 들을 수 있다. 선지식 33분이 동시대를 호소하는 이들에게 던지는 활구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 사회를 끊임없이 소생케 하는 청정함 예니지다. <현대불교신문사 엮음, 여시아문, 7천원>

달을 듣는 강물 (7위)

평생을 일하는 수행자로 살면서 구한말과 일제시대에 그림자도 남기지 않았을만큼 묵묵히 수행했던 수월스님의 일대기. 29세에 출가해 33세에 깨달음을 성취한 뒤 74세에 열반에 이르기까지 한 순간도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남을 위해 살았던 수월스님의 삶의 궤적 자체가 그대로 수행이고 법문임을 저자 특유의 담백하고 진솔한 필치로 그리고 있다. <김진태 저, 해남, 6천5백원>

새들이 떠나간 숲은 적막하다 (8위)

강원도 두메산골 오두막으로 거처를 옮긴지 5년, 법정스님이 <버리고 떠나기> 이후 수행의 길을 청량한 필치로 그렸다. 스님은 특유의 산만함답고 함께 자연 중심의 생명사상을 맑은 언어로 표현하고 있다. 온갖 질병과 활판 위기를 불러들인 원대인들이 이제는 산대지를 신성한 존재로 여기는 동양사상 속에서 자연과의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법정스님 저, 샘터, 7천원>

불교입문 (9위)

조계종 포교원이 펴낸 최초의 통일된 불교입문서. 불교입문서로는 드물게 베스트불서에 오른 이 책은 교학보다는 믿음과 행을 강조한 것이 특징. 불교의식과 문화의 통일을 목적으로 불자가 알아야 할 지식들을 간명하게 정리했으며 시대적인 흐름을 담기 위해 민족 통일, 환경문제, 봉사활동, 성묘의 이해와 보존 등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 <조계종포교원 저, 조계종, 3천5백원>

금강경 강의 (10위)

통도사·범어사 강주를 역임, <화엄경>을 완역하는 등 활발한 강의와 집필을 계속중인 무비스님의 <금강경> 해설서. 저자는 "부처님은 <금강경>을 통해 인생·심리현상의 실상과 '우리가 지금 여기 있음'의 진실을 밝혔다고 말한다. <금강경>에는 '모든 부처님과 그 깨달음이 모두 이 경에서 나왔다'는 구절이 있을 정도다. 94년 12월 출간 이래 6쇄를 거듭하고 있다. <무비스님 저, 불광, 5천5백원>

삼중스님이 그려보는 이 시대의 자화상!

배고프면 먹고 졸리우면 자고

최신간

바르게 살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비뚤어진 세상에서 오래간만에 만난 삼중스님의 살아서 펄펄뛰는 선어(禪語)와 풍자!

점점 살기 어려워진다고, 차라리 옛날이 그리다고, 앉자마자 졸리우면, 가버리는 호주머니, 명예퇴직이니 권고사직이니, 언제 끊어질지 모르는 밥줄, 사람만 있고 사랑은 없는 이 시대를 한탄하며 세상을 안타깝게 바라보는 인간 군상들에게 행동하는 부처 삼중스님이 전하는 맑고 시원한 샘물 같은 메시지!

가끔 사람이 답답하게 느껴질 때가 있다. 욕심에 욕심을 부려 욕심으로죽는가 하면 지식에 지식을 파다가 지식에 묻히기도 한다. 하늘을 보면 하늘이 다윈 줄알고 땅을 보면 땅이 다윈 줄 아는 사람들. 그러면서 일상에 매몰되어 가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을 위해 잠시 자신과 주변의 울타리를 걷어내고 작은 상상에 얽매었던 불을 깨도록 문자와 언어와 형상조차 버림받지 않은 세계로 안내하고 싶다.

- 작가의 말 -



철학과 은유, 웃음과 풍자가 가득한 스님의 글 속에서 우리는 달래진 눈과 귀, 가슴과 머리를 흔들며 깨우는 인자한 손길을 느낄 수 있다.

신국문/296면/값 6,500원

삼중스님 에세이 154

결망에서 배운 인생

속세의 어리석음도 미처 다 헤물리지 않았거든..... 결망 하나 짊어지 채 집 떠난 지 40년 세월!

묵묵 하나, 금강경, 그림 몇 점 담긴 남루한 결망이 때로는 부끄럽고 번거로웠다. 그러나 솔한 살의 고백장에서 바랄 아닌 보살들을 만나며, 꺾이는 마음의 함장을 골수세웠다. 살아 성불하기보다 자비한 미소 한줄 잃지 않으려고.

죽음을 목전에 둔 사형수들이 철창 밖으로 뛰려는 참회의 편지 최초 공개!

사형수들이 보내온 편지 1.2

제1부 참회의 눈물로 보낸 나날들 제2부 어머니님 전상서

사회가 극도로 어리러우니 사형수인 저로서는 마음의 준비를 하며 이승에서의 마지막 편지를 씌어봅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어머니...

정해져 있는 죽음 앞에서 그들은 모두 성자였습니다. 신국문/232면/값 5,500원